

A. Schaff 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설 현 영

- I. 머리말
- II. 사상적·시대적 배경
- III. 모순의 의미
- IV. 운동과 객관적 모순의 문제
- V. 변증법적 모순과 모순을
- VI. 맺는 말

I. 머리말

1956년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이제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과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기초, 즉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재검토가 공식적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서구에서도 실증주의와의 방법론 논쟁을 통하여 변증법에 대한 (방법론적)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러한 변증법적 방법의 핵심은 모순개념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1960년대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진거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A. Schaff 의 변증법적 모순개념을 검토하여,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음미하는데 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연과 사회와 의식의 보편적인 발전법칙들에 관한 이론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칙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법칙으로서의 변증법적 모순의 법칙이다.¹⁾ 즉 변증법적 유물론은 객관적 세계 및 우리의 사유의 발전을 이루는 모순의 존재를 승인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순의 승인은 형식논리학의 모순율²⁾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 1) 대부분은 변증법의 3가지 법칙으로 ① 양질전화의 법칙 ② 대립물 상호 침투의 법칙 ③ 부정의 부정 법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어떤이는 ① 양질전화로서의 발전법칙 ② 대립물의 투쟁으로서의 발전법칙 ③ 부정의 부정법칙 ④ 자연과 사회에서의 제현상 사이의 보편적 연관법칙 ⑤ 자연과 사회에서의 운동과 발전법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필자는 대립물의 통일이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 2) 동일물 ($A = A$)과 함께 형식논리의 기본원리로서 $\langle A \neq \text{non} - A \rangle$ 로 표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율을 '동일한 것이 동일한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것에 동시에 속하면서 또 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는 무모순율, 모순금지율, 모순회피율이라고도 불리운다.

설현영

다시 말해서, 객관적 세계의 모순을 반영하는 인식에 있어서의 변증법적인 모순은 형식논리적인 모순과 양립가능인가 불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통속적인 입장은 ㉠ 모순을 승인하는 변증법은 합리적 사유를 규제하는 형식논리학적 모순을 침해하므로 비합리적이고 어불성설의 이론이라는 입장³⁾ (Popper)과 ㉡ 모순을 승인하는 변증법은 형식논리 보다 고차적인 논리라는 이중논리(dual logic)를 주장하는(즉 형식논리의 타당성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입장⁴⁾ (Plechanow)이다.

대부분의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A. Schaff는 두 입장을 종합하여 변증법적 모순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악 역시 당시 폴란드의 사상적·시대적 배경의 반영이므로 A. Schaff의 모순론을 검토하기 전에 그 배경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II. 사상적·시대적 배경⁵⁾

A. Schaff는 당시 폴란드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전통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즉 그가 고향인 라보프와 파리에서 법과 경제학을 공부하다 관심을 돌려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던 무렵, 폴란드 철학계에서는 논리학과 언어철학(특히 의미론(semantic))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한 일군의 철학자들이 소위 라보프-바르샤바학파(Lavow-Warschawa School)를 형성하고 있었다.(대표적인 학자로는 K. Twardowski, J. Lukasiwicz, A. Tarski, T. Kotarbinski 등이 있다.) 이 학파의 영향으로 당시 폴란드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식론적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A. Schaff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점은 1951년에 출간된 「마르크스주의적 진리론의 문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당시까지만 해도 A. Schaff의 진리론(그리고 그의 철학적 입장)은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의 노선에 충실했다.

1956년 소련의 제 20차 전당대회에서 불붙기 시작한 스탈린 격하운동은 폴란드에서도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즉, 폴란드의 10월 사태는 정치·경제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학문 분야에서도 전면적인 봉기를 불러 일으켰다. 개방적인 성격의 A.

3) R. Kroner는 헤겔이 형식논리학적인 모순을 침해하는 변증법적 모순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철학사가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비합리주의자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K. Popper는 실질적 함축의 역설(paradoxes of material implication)에 의거하여, 즉 $p \supset q$ 는 $\sim p \vee q$ 와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형식논리적 치환규칙에 의거하여 모순을 승인하는 변증법적 철학은 어불성설의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4) 이점에 관해서는 I. M. Copi / J. A. Gould ed. Reading on Logic에 수록된 논문 A. Schaff의 Marxist Dialectics and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1960), p.155-156 참조. 이 논문에 대한 검토가 이 글의 주제를 이룬다.

5) 이 장은 주로 Prederag Vranicki; Geschichte des Marxismus, s. 744-751을 참조했다.

A.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Schaff 역시 이러한 사태의 반영으로 이제 더 이상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의 편협한 한계에 머무르고자 하지 않았다. 물론 1959년 말까지만 해도 A. Schaff는 청년 마르크스의 문제들을 현대세계와 사회주의를 파악하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자 했던 Kolakowski의 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56년 이래의 독자적인 철학적 탐구의 결과를 「의미론 입문」(1960)과 「언어와 인식」(1964)의 형태로 발표했다.

「의미론 입문」에서 A. Schaff는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의 편협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비판의 당파성은 적을 폭로하여 근절시키는 성격을 뜻한다는 확신이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의 문헌을 지배해 왔다. 그리고 적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분석을 왜곡시키는 ‘객관주의’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상아탑적 습관에 물든 것을 의미했다...”⁶⁾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의 편협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의거하여 A. Schaff는 논리적 의미론의 공과(功過)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즉 A. Schaff에 의하면, 논리적 의미론의 위대한 업적은 언어 문제의 철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데 있다. 그러나 논리적 의미론은 언어 문제를 유일한 철학적 문제로 간주한 나머지 언어의 형식적 측면 즉, 통사론(Syntax)의 문제에만 주목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미론에 몰두하는 논리학자들은 언어의 사회학적·인식론적 문제를 등한시하고 만다. 그러나 Schaff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야말로 철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제로서 마르크스주의적 의미론은 이러한 문제를 아울러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Schaff의 논리적 의미론과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의 의미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언어와 인식」(1964)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언어와 인식」에서 Schaff는 “언어와 사유가 인식과정과 이해과정에서 불가분리적인 전제를 이루고 있다”는 명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Schaff의 명제는 “언어가 세계와 현실의 像(Bild)을 창조한다”는 Ajdukiewicz, Cassirer 등의 관념론자들의 명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 세계와 현실의 像을 창조한다”는 속류 유물론자들(Schaff의 표현에 따르자면, 소박 실재론자들)의 반대명제와도 대립되는 Schaff고유의 명제이다.⁷⁾ 그는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이 안고 있는 수동성을 관념론의 주관성을 도입하여 변증법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듯이, 속류유물론의 소박한 반영론적 인식론이 안고 있는 수동성을 극복할 주관성을 언어 속에서 찾고자 한다. 이때 Schaff는 언어의 주관적 창조성을 관념론적인 선형적 창조성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실천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언어의 기능 속에서 찾는다. 즉 Schaff에 의하면, 인식의 주관성은 지각구

6) Prederag Vranicki ; 앞의 책, s. 745에서 재인용.

7) Prederag Vranicki ; 앞의 책, s. 748 참조. 관념론과 속류유물론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입장을 모색하는 Schaff의 태도는 변증법적 모순론에서도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실현영

조의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언어의 기능에 있다는 것이다. Schaff 는 이 점을 「언어와 인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인간의 인식과 지각의 내용과 방식은 계통발생과 개체발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천양식에 달려있다...”⁸⁾

이와 같이 Schaff 는 인간의 실천의 역사적 형식을 반영하는 언어의 기능 속에서 인식의 창조적 주관성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발견한다. 즉 그는 창조적 주관성을 통하여 속류유물론자와 공식적 마르크스주의의 수동적·기계적 주관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주관성은 인간의 실천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념론적 주관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당시 대립적으로 이해되고 있던 관념론과 속류유물론의 대립을 위와 같이 극복했던 Schaff 의 인식론적 성과는 그가 변증법적 모순문제를 고찰할 때 이론적 전제가 되었다.

Ⅲ. 모순의 의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연, 사회, 의식의 보편적인 발전법칙을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이러한 발전법칙은 모순법칙에 의거하여 탐구되는데, 그 까닭은 사물과 현상의 운동과 변화, 발전은 모순을 통해, 모순에 의거하여, 모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과 현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이 운동·변화·발전의 근원이자 추진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순은 형식논리학에서 전제되고 있는 모순율과 배중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변증법적 모순의 존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형식논리학의 모순율을 폐기해야 하는가?

Schaff 가 보기에,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정초자는 물론 이들의 사상적 지주인 헤겔에 있어서도 명백하지 않다. 즉 이들은 위 물음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답을 때로는 부정적인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엥겔스는 「反뒤링論」에서 “상식은 해결할 수 없는 모순(insoluble contradiction)에 얽혀 있다.” 혹은 “헤겔체계는 치유할 수 없는 모순(incurable contradiction)으로 고통당하고 있다.”와 같은 귀절에서는 모순율을 긍정함으로써 변증법적 모순과 형식논리적인 모순의 양립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논쟁 중에 상대방의 추리가 모순을 범한다면, 모순을 범한 추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형식논리학의 추리규칙을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존중하고 있음을 그들의 문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스탈린은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나」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적 변증법이 큐비에 (Cuvier)의 대격변설이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가 다윈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8) Prederag Vranicki ; 앞의 책, s. 748에서 재인용

A.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고 비난할 때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모순이므로 거짓이라고 논증한다. 스탈린이 보기에 그 까닭은 큐비에선 다원적 진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격변만을 인정하는데 비해서, 다원은 큐비에의 대격변을 거부하고 점차적인 진화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스탈린 역시 모순금지율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인 판사라 하더라도 현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의 진술을 실제자체에 고유한 객관적 모순의 한 반영으로 간주하기는 커녕 피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할 것이라고 Schaff는 단언한다.

이와 같이 변증법은 모순의 객관적 성격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에 있어서의 논리적 모순을 금지한다. 바꾸어 말하면, 변증법은 의심할 나위없이 무모순율의 타당성을 (아울러 배증율의 타당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즉, 사유 속에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변증법에 의해 부과된 모순율의 타당성이 적용되는 한계가 어디인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통속적인 답은 엥겔스가 「반두링론」에서 제시했던 것으로서, 대상을 정지상태나 관성상태에서 분석할 때는 모순율이 타당하지만 운동이나 변화를 분석할 때는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플레하노프의 “이중논리”도 마찬가지로의 답을 제시한다. 플레하노프는 「마르크스주의의 근본문제들」에서 (모순율을 준수하는) 형식논리는 물체의 정지상태를 분석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것이지만, (모순율을 거부하는) 변증법적 논리는 운동과 발전을 분석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플레하노프에 의하면, 유크릿 기하학이 고차적인 비유크릿 기하학의 특수한 경우이듯이, 관성의 논리(logic of inertia), 즉 형식논리는 고차적인 변증법적 논리의 특수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변증법적 논리에서 다루는 모순이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Schaff는 모순개념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자들의 문헌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모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사물의 객관적 속성에 근거하는 결합이나 잘못, 혹은 거짓이 아니라 주관적인 결합, 잘못을 뜻한다. 즉 모순적인 두 문장의 연언(Conjunction)은 거짓이며(즉 $p \cdot \sim p$ 는 거짓이다.) 이런 모순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Schaff는 이런 의미의 모순이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대립물의 통일(the Unity of opposites)’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모순관은 헤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Schaff는 이러한 의미의 모순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뜻으로 헤겔⁹⁾, 마르크스, 엥겔스 등의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 대상과 현상들은 양극적인 구조(polar structure)를 지닌다

9) 헤겔이 대립물의 통일이란 뜻으로서의 모순의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 자석의 N극·S극 ㉢ 양전기·음전기 ㉣ 행성운동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구심력 ㉤ 위와 아래 ㉥ 아버지와 아들 등이 있다. Schaff는 헤겔이 대립물의 통일이 갖는 뜻의 다의성을 명확하게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 Schaff; 앞의 논문, p. 157 참조.

설현영

는 뜻 ⑥ 양극적인 구조와 연관된 대립적 힘들의 투쟁(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힘으로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⑦ 임의의 대상이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될 때 드러나는 상이한 측면들 사이의 대립(예컨대, 어떤 시기엔 진보적이지만 이와 아울러 후진성의 싹을 갖고 있는 의회제도). Schaff에 의하면, 이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대립물의 통일이야말로 변증법에서 다루는 모순의 본래적 뜻이다. (즉 변증법적 모순개념이다.) 그러나 Schaff는 이러한 모순을 논의할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논의는 언어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이므로(그리고 앞에서 고찰했듯이, 언어와 사고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항상 모순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남극과 북극이라는 양극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자석에 관해 진술할 때, 우리는 자석이 북극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니고 있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양립불가능성(incompatibility), 부적합(maladjustment), 수행불능, 붕괴(collapse)등을 뜻한다. 예컨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체제상의 근본 모순(즉 계급모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말할 때가 바로 세번째 뜻으로서의 모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과 이런 모순을 자체 내에 안고 있는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양립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는 사회적 기제(social mechanism)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Schaff는 이러한 뜻의 모순은 형식논리학의 모순금지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뜻의 모순은 모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한다는 것이다. 결국 Schaff는 객관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립하고 있는 모순의 붕괴, 폐지, 해소를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순의 금지와 동일시하고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모순의 의미에 대한 분석에서 Schaff는 대립물의 통일으로서의 모순의 객관성을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모순의 서술차원에서는 형식논리학의 모순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객관적 모순의 운동성격이나 기능 역시 모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독자적인 주장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엥겔스가 헤겔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동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적절한 서술은 모순적인 문장의 사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할 때, Schaff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고찰해 보자.

IV. 운동과 객관적 모순의 문제

엥겔스는 「반두링론」에서 운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물을 정지와 관성 상태에서 관찰하는 한, …우리는 사물의 내부에 깃들어 있는 어떠한 모순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사물을 운동, 변화, 상호작용 속에서 관찰하는 한, …우리는 즉시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운동 그 자체가 모순이다. 심지어 기계적인 위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체가 동일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때 뿐

A.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이다.”¹⁰⁾

이와 같은 엥겔스의 운동론은 헤겔의 운동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이는 고대 엘레아 학파의 운동론과 동일한 형이상학적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고 Schaff는 주장한다. 즉, 헤겔에 의하면, 운동하는 사물은 ‘지금’(now)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지금’에는 다른 곳에 있고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here)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다고 표현될 수 밖에 없다. Schaff에 따르면, 이러한 헤겔의 운동론은 엘레아 학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잘못된 두개의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① 존재(is)라는 말의 다의적인 의미를 혼동함으로써 야기된 전제(즉 의미적 혼란에 기인한 전제). Schaff에 의하면, ‘존재’라는 말은 ㉠ 실재(existence) ㉡ 집합의 원소(class membership) ㉢ 동등성(equality) ㉣ 어디에 있다(find itself)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 헤겔과 엘레아학파는 이와 같은 존재(is)의 ㉠적 의미(find itself)를 일정한 순간에 일정한 곳에 정지해 있다(resting there)로 해석함으로써 의미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상의 혼란은 ② 시간과 공간은 아주 미세한 시점과 공간으로 분할가능하다는 전제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Schaff가 보기에, 이 잘못된 두번째 전제는 시간과 공간의 불연속성의 문제(the question of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ime and space)와 가부번적인 무한급수(enumerable infinite series)의 문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 대해 Schaff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한다.

첫번째 전제에 대한 비판; 운동을 서술하는 ‘is’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정지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곳들을 통과한다’(it passes through points in space)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운동은 정지상태로 환원되어 정지상태의 연속(불연속성의 연속문제)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것은 정지가 아니라 운동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Schaff에 의하면, 정지는 어디까지나 운동의 한 계기이자 운동의 산물이며 상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즉, 두 물체가 두 물체 이외의 모든 물체에 대하여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이 두 물체는 상호간에 정지상태에 있다.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는 중간의 어떤 지점을 통과하고 있으면서 통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의 여러 지점들을 통과한다고 표현함으로써, Schaff는 운동에 대한 서술은 모순적인 문장을 요구한다는 엥겔스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전제에 대한 비판; 헤겔과 엘레아학파가 전제하고 있는 ‘무한히 작은 量(양)’이라는 개념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당시에는(수학자들에게조차) 상식적인 개념이었다. 즉, 당시에 이 개념은 제로(0)와 같으면서 동시에 제로와 다른 크기라는 모순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Augustin Cauchy와 Bolzano에 의해서 이러한 모순이 제거될 수 있는 혁명적인 성과(즉 0에 수렴하는 합

10) A. Schaff; 앞의 논문, p. 158에서 재인용.

실현영

수 혹은 급수라는 성과)가 미적분에서 획득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의 일이므로, 헤겔과 마르크스, 엥겔스가 (아울러 이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레닌이) 이러한 성과를 물렸다는 것은 시대적 제약으로 당연한 일이었다고 Schaff는 평가한다.

요컨대, Schaff의 주장에 의하면, 운동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대립물의 투쟁에 의해 야기되는 것일 뿐 논리적 모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운동의 수락과 논리적 모순의 거부는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헤겔과 엘레아학파는 모두 잘못된 형이상학적인 전제에 의거함으로써 잘못된 운동론을 끌어 낸다는 것이다. 즉, 논리적 모순을 수락하거나 운동의 객관성을 거부하거나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엘레아학파는 모순을 거부함으로써 운동을 거부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반면, 헤겔은 운동을 수용함으로써 모순을 수용하는 결론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Schaff는 이러한 결론들이 모두 잘못된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인한 잘못된 결론들이라고 주장한다.

V. 변증법적 모순과 모순을

객관적 운동의 수락과 논리적 모순의 거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Schaff의 주장은 결국 “역학적 운동의 모순에 관한 엥겔스의 정의가 형식논리학의 모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을 뜻한다.”¹¹⁾ 따라서 변증법적 모순이나 원리를 서술하는 명제들이 모순을 침해한다면, 모순적인 전제(즉 거짓된 전제)로 부터는 어떠한 결론이나 다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제들로 부터 어떠한 정보나 의미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모순을 준수함으로써만 우리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변증법적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과연 그와같이 오직 모순을 준수를 통해서만 변증법적인 모순에 대한 참된 인식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일까? 과연 이론간의 대립이나 모순은 그 이론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한 것일까? 오히려 그 이론에 의해 파악된 현실의 대립이나 모순이 이론 속에 재현되는 한, 이론간의 대립이나 모순은 그 이론의 확증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마르크스가 “자본은 유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¹³⁾

11) 이 명제는 1964년에 소련에서 개최된 엥겔스의 운동과 형식논리학과의 관계에 관한 세미나에서 전개된 논의를 E. Huber가 분류 정리하면서 A. Schaff의 입장을 요약한 명제이다. E. Huber에 의하면, A. Schaff는 엥겔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한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폴란드의 마르크스주의자 K. Ajdukiewicz의 입장에 주로 의거하고 있다 한다. E. Kolonar도 A. Schaff의 입장에 동조한다. E. Schneider: *Einheit und Gegensatz in der Sowjetphilosophie*, s. 21-22 참조.

12) A. Schaff: 앞의 논문, p. 161.

13) H. Kocyba: *Widerspruch und Theoriestruktur*, s. 44에서 재인용

A.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고 진술했을 때,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적인 한 측면을 참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와 서술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모순은 단순히 논리적 실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해소되어야 할 모순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의 해소는 단순하게 모순율의 준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객관적인)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런데 Schaff는, 사유에서 나타나는 변증법적 모순을 형식적 모순의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실재를 서술·설명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곧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실재적 모순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Schaff가 이와 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된 까닭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모순의 세번째 의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Schaff는 변증법적 모순의 본래적 의미는 '대립물의 통일'이라고 규정한 다음 대립물의 통일이 뜻하는 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의미의 다양성을 열거만 할 뿐 그 통일적인 연관에 대해서는 상세한 고찰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대립물의 통일의 구조와 의미가 모순의 해결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통일적 연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면, 대립물의 통일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며 잠정적이며 상대적이지만 상호배제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이나 운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다.¹⁴⁾ 여기서 대립물의 통일이란 대립하는 양측면의 각각이 자신에 대립하는 다른측면을 자신의 존재조건으로 상호 전제하며 하나의 통일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와같이 공존하고 있는 대립적 측면들은 불균등한 세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반대물로 전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관계의 불균등성에 의해 대립적 측면들의 투쟁은 절대적이게 된다. 이때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측면의 성격이 대립하고 있는 사물의 성격을 규정하며 아울러 대립투쟁의 형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대립하고 있는 측면간의 불균등한 세력관계가 적대적일 때는 투쟁의 형식도 적대적이지만, 비적대적인 때는 투쟁의 형식도 비적대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불균등한 세력관계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투쟁을 거쳐 상호전화되듯이, 적대적 투쟁형식과 비적대적 투쟁형식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상호전화한다. 물론 투쟁은 대립물이 발생하면서부터 소멸할 때까지(보다 엄밀한 표현으로는, 다른 것으로 전화할때 까지) 발전의 전과정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다. 다만 발전과정의 성격을 결정하는 대립물의 주요측면에 의해 투쟁형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때 주요측면에 의해 규정된 투쟁형식이 적대적인 데 비적대적인 방식에 의거하면, 모순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격화될 뿐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이 대립물의 조건적·상대적 통일성과 무조건적·절대적 투쟁성이 결합하여 모든 사물의 모순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에 깃들여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4) 이는 레닌의 「 Zur Frage der Dialektik 」에서 인용한 귀절이다. Philosophische Hefte Bd. 38. Werke von W. I. Lenin S. 339 참조

설현영

서는, 대립하고 있는 두 측면이 상호전제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여 두 측면간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전회시킬 주요측면을 포착해 내야 한다. 이때 사물의 일정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의자, 책상, 봉건제도, 자본가, 노동자 등의 내주위에 있는 사물을 그 자체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물들과 관계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즉 세계전체와 필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다. 사물들은 각각 대립물의 통일이기 때문에 사물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 외적일 수가 없고 중첩적인 대립적인 측면들 사이의 중첩적인 세력관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변증법적 모순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의미의 구체적인 탐구를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순을 형식논리학의 모순율과 동일시함으로써,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변증법적 모순을 모순없는 실재적 대립(real opposition)으로 환원시키고 말기 때문이다. 즉, 실재적 대립은 상호외적으로 충돌, 반발, 대립하는 것을 뜻하므로, 변증법적 모순을 실재적 대립으로 환원시키는 사람들은 사물간의 필연적 본질적 연관을 통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이와는 달리 A. Schaff는 객관적 세계에 변증법적 모순이 즉 대립물의 통일이 존재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아울러 그는 사유와 서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순율을 승인한다. 따라서 그는 대립물의 통일의 현상과 그 원리의 서술에 있어서는 변증법적 모순의 존재를 완강히 거부한다. 그리고 객관적 세계에서 대립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조건을 탐구하지 않음으로써, Schaff는 모순의 해결을 형식논리적인 모순율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순율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된 변증법적 모순의 해결은 더 이상 객관적인 모순의 해결이 아니라 정연한 이론(coherent theory)과 정연하지 못한 이론을 구별하는 데 소용될 뿐이다. 즉 이와 같은 변증법적 모순의 기능은 이론비판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모순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이론비판적인 기능에 의한 정연한 이론구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의 주관적 사유와 진술체계에 나타나는 대립과 모순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의 한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한, 이러한 사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유의 모순에 반영되고 있는 객

15) 이와 같이 형식논리적인 모순과 실재적 대립을 체계적으로 분리시킨 최초의 사람이 Kant이다. Duhring도 Kant의 분류를 따른다.

L. Colletti는 이와같은 칸트의 분류를 받아들여 유물론과 과학의 기본원리는 무모순율이기 때문에 변증법적철학은 유물론적이거나 과학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실재는 변증법적 모순을 포함할 수 없으며 오직 실재적 대립들, 세력갈등, 반대관계만을 포함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Colletti에 의하면, 실재적 대립이란 변증법적 모순이 아니라 무모순적인 대립일 뿐이다. R. Norman / S. Sayers; Hegel, Marx and Dialectic, p. 27 참조

A.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관적 모순의 대립적 측면들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탐구결과를 지침으로 삼아 포착된 투쟁형식에 의해 객관적 모순은 해결된다. 물론 이러한 해결은 앞에서 고찰한 바대로 조건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새로운 대립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¹⁶⁾ A. Schaff는 바로 이러한 매개과정 즉 변증법적 모순과 모순율과의 연관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 모순의 해결과 모순율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주관적·관념적 태도를 면치 못했다. Schaff가 이와 같이 주관적·관념적 태도를 취하게 된 인식론적 배경에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언어의 주관적 창조성을 인간적 실천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언어의 기능 속에서 찾고 있는 입장이 깔려 있다. 즉,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이 주관적·관념적 성격을 띠게 된 데에는 언어의 주관적 창조성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다.

VI. 맺는 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스탈린 격하운동이후 불분명해진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기초개념에 대한 재검토는 특히 변증법적 모순의 성격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이 변증법적 모순개념에 논의가 집중된 까닭은 이 개념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기본개념이란 이유 이외에도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걸쳐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새로운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증법적 모순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절박한 이론적 문제이자 실천적 문제였다.

Schaff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독특한 기여를 했다. 즉 로보프-바르샤바학파의 인식론과 의미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그는 변증법적 모순과 형식논리적 모순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제시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는 변증법적 모순과 모순율을 각각 객관적인 사물의 세계와 정연한 이론체계(혹은 서술체계)에 국한시킴으로써 Popper 식의 변증법적 논리의 '무용론(無用論)'과 Plechanow 식의 '고차적인 이중논리'를 아울러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물세계에서 존재하는 대립물의 통일조건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결여함으로써 그는 변증법적 모순의 성격, 기능, 해결방식에 있어서 주관적 관념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는 그의 소외론과 국가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¹⁷⁾ 즉, Schaff는 사유재산이 철폐되면 소외가 자동적으로 제거된다는 태세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의 어떤 체제도 소외의 다양한 형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Schaff는 인간에 대한 지배장치로서의 국가는 소멸할 수 있지

16) 헤겔은 새로운 대립물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규정된 부정'(bestimmte Negation)이란 범주를 도입했다.

17) Schaff의 소외론과 국가론은 「인간의 철학」(1962) 「마르크스주의와 인간적 개체」(1965)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Prederag Vranicki의 앞의 책 s. 745-751에 의거했다.

설현영

만 사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의 국가는 소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도 위계적인 관료구조를 전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소외의 존재를 시인하고 주목한 점은 그리고 관료제의 구조문제를 중시한 점은 스탈린주의를 거부하는 Schaff의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관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소외와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무차별적인 동질적 파악은 바로 구체적 조건에 대한 탐구를 결여한 Schaff의 모순론의 주관적·관념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순의 적대적·비적대적 성격과 기능(아울러 내부모순과 외부모순의 관계,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성격과 기능)¹⁸⁾ 구체적으로 포착할 때, 사회주의체제에서 야기되는 소외와 관료화의 문제의 성격과 해결책이 자본주의체제에서 야기된 소외와 관료화의 문제의 성격과 해결책과 어떻게 다른지 하는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될 것이다.

18) 이러한 모순의 성격에 대한 상론은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

A.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참 고 문 헌〉

A. Adam Schaff의 원전

1. Language and Cognition, McGraw-Hill, Book Company, 1973.
2. Marxist Dialectics and the Principle of Contrdiction 1960, - I.M. Copi / J.A Gould ed: Readings on Logic,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72 .에 수록된 논문.

B. 이차 문헌

1. Eberhard Schneider, "Einheit" und "Gegensatz" in der Sowjetphilosophie, Verlag Wissenschaft and Politik, Köln, 1978.
2. Gottfried Stiehler, Widerspruchsdialektik und Gesellschaftsanalyse, Dietz Verlag, Berlin, 1977.
3. Hermann Kocyba, Widerspruch und Theoriestruktur, Materialis Verlag, Frankfurt am Main, 1979.
4. Predrag Vranicki, Geschichte des Marxismus, Band I. II,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83.
5. Richard Norman/ Sean Sayers; Hegel, Marx and Dialectic-A Debate, The Harvester Press, Sussex, 1980.